

---

## 치료 암환자와 호스피스 환자의 삶의 질 비교

광주보건대학 방사선과, 전남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

김승국, 이동수\*, 류제만\*, 김종덕\*

---

**목 적** :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와 호스피스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 관련 및 통증정도를 비교한다 아울러 삶의 질과 문항평균평점을 비교한다.

**대상 및 방법** :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C병원 치료방사선과에 외래를 통하여 방사선 요법을 받기 위해 퇴원한 환자 46명과 J병원에 입원한 호스피스 환자 14명을 선정기준에 의하여 표집하였다. 방법은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삶의 질은 최소값, 최대값, 문항 평균 평점을 산출하였으며 가족에 대한 지지, 사회적지지, 정서 및 영적지지, 치료중 신체적 증상, 주기 전수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dn coefficient로 비교 분석하였고 질병관련 특성은 GLM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치료 암환자 연령분포는 60세 이상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가 35.0%, 40~49세가 15.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6.8세였다. 호스피스 환자 연령분포는 60세 이상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가 10.0%, 40~49세가 7.1%, 30~39세가 14.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2.9세였다.

치료암 환자에서 종교는 57.5%가 있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국졸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87.5%로 가장 많았고 결혼 기간이 31년 이상이 37.5%를 차지하였다. 또한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는 92.5%이었고 평균 2.59명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95.0%, 직업은 무직이 37.5%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주거 소유는 자가 72.5%로 가장 많았고 주거 방법으로는 단독 주택 및 아파트가 47.5%로 같았으며, 월 수입은 150만 원 미만이 70.0%, 150만 원 이상이 30.0%로 나타났고 치료비 부담자는 본인이 75.0%로 나타났다. 이에 호스피스환자는 유종교가 71.4%, 교육정도는 고졸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87.5%로 가장 많았고 결혼기간은 31년 이상이 42.9%를 차지하였다. 또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92.8%이었고 평균 31.4명 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85.7% 직업은 주부가 42.9%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주거소유는 자가 57.1%로 가장 많았고 주거방법으로는 단독주택이 64.3%, 아파트가 28.6%이었으며 월수입은 150만 원 미만이 42.5%, 150만 원 이상이 57.5%로 나타났고 치료비 부담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71.4%로 나타났다.

**결 론** : 치료암 환자 대 호스피스 환자의 비교에서는 모두 70% 이상이 본인 부담이었고, 유병기간은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적 증상에서는 피로감 대 체중 감소로 높고 부종 대 피부 변화로 가장 낮았다. 문항 평균 평점에서는 성격에서 3.10대 1.58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